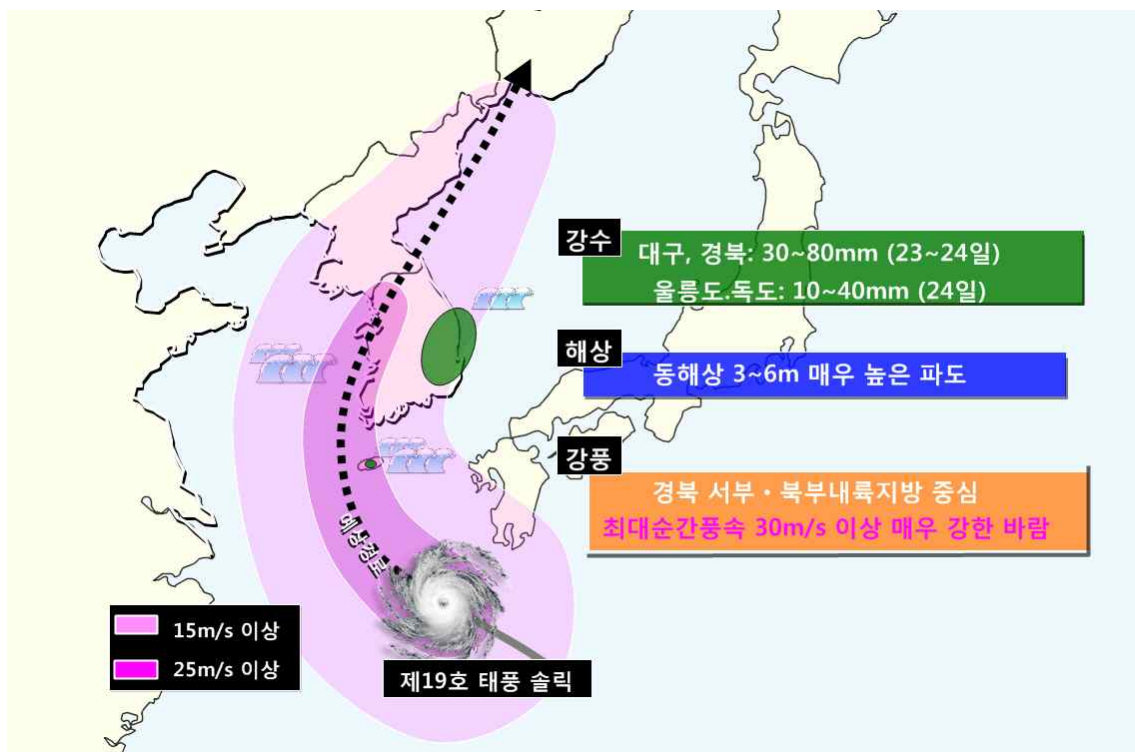


설명자료

배포일시	2018. 8. 22.(수) 12:00 (총 3 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담당자	과장 전재목 예보팀장 강성규
		전화번호	053-956-0365

태풍 솔릭(SOULIK) 북상, 태풍 직접 영향!

- 대구 · 경북은 내일(23일) 낮~모레(24일) 오후 매우 강한 바람
- 동해 전해상 내일(23일) 낮~글피(25일) 오전 매우 높은 파도



<태풍 예상 진로 모식도>

[태풍 현황과 전망]

- 22일(수) 09시 현재,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은 강한 중형급 (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43m/s) 세력을 유지하며 서귀포 남남 동쪽 약 3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 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음.

- 태풍 ‘솔릭’은 점차 북서진하여 오늘(22일) 밤부터 내일(23일) 새벽 사이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서해남부해상까지 북상하겠음. 23일(목) 밤에 중부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24일(금) 새벽 수도권 지역을 통과해 오후에는 강원도북부를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음.

- ※ 대구와 경북은 내일(23일) 밤~모레(24일) 아침 태풍중심권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됨.

-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은 내일(23일)부터 모레(24일)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고, 내일(23일) 낮부터 모레(24일) 오후 늦게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태풍특보가 확대, 강화 되겠음.

[강수, 강풍 전망]

- 태풍이 바닷물의 온도(28℃ 내외)가 높은 구역을 지나면서 ①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②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반원(우측반원)에 들기 때문에 최대순간풍속 30m/s(72~108km/h)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옥외 시설물, 건물 유리창, 가로수 등 제반 시설물 붕괴와 같은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또한, 오늘(22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24일(금) 아침까지 항공기 이착륙에 유의하기 바람.
- 대구와 경북은 내일(23일)부터 모레(24일)까지 30~80mm, 울릉도. 독도는 모레(24일) 10~40mm의 비가 오겠으며, 강한 바람과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음.

[해상 전망]

- 동해남부전해상에도 23일(목) 낮부터 25일(토)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3~6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선박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바람,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 또한, 태풍의 영향을 받는 기간 동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해일에 의해 해수범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 시설물 피해,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행락객, 피서객들도 매우 높은 파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